

종교개혁과 성경 정경의 재구성: 구약 성경이 46권에서 39권으로 축소된 역사적, 신학적 과정과 주요 인물 분석

서론: 서방 기독교의 정경적 전환점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제도적 부패에 대한 저항이나 교리적 수정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근원인 '성경(Scriptura)' 자체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거대한 인식론적 전환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가시적이고 논쟁적인 변화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의 범위에 대한 재설정이었다. 중세 라틴 교회가 전례와 신학적 논증에서 46권(또는 그 이상)의 구약 문헌을 폭넓게 사용해 온 반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히브리 맟소라 본문(Masoretic Text)에 기초한 39권으로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른바 '외경(Apocrypha)'으로 분류되어 정경의 지위를 상실한 토빗기, 유딧기,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권 등의 배제는 단순한 서지학적 분류의 변경이 아니었다. 이는 신적 권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교회의 전승인가, 아니면 예언자적 기원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신학적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본 보고서는 이 정경 축소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흔히 종교개혁자들이 임의로 성경을 삭제했다는 통속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 과정이 고대 교회의 '히브리 진리(Hebraica Veritas)' 전통으로의 회귀였음을 밝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네 명의 인물—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폰 칼슈타트(**Andreas Bodenstein von Karlstadt**),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장 칼뱅(**John Calvin**)—의 사상과 기여를 면밀히 추적한다. 또한 이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응, 특히 토마스 데 비오 카예탄(**Thomas de Vio Cajetan**) 초기경의 온건한 입장과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ent)**의 강경한 교조화 과정을 대조하여 분석함으로써, 16세기 정경 논쟁의 다층적인 지형을 복원하고자 한다.

제1부: 종교개혁 이전의 정경적 지형과 긴장

종교개혁 시기의 정경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 이전 서방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중적인 정경 전승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중세 교회는 단일하고 확고하게 닫힌 정경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가지 상반된 권위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1 두 가지 권위: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말, 서방 교회는 구약 성경의 범위를 두고 두 거장의 엇갈린 견해를 마주했다. 이 긴장은 1,000년 이상 잠복해 있다가 종교개혁기에 폭발하게 된다.

1.1.1 히에로니무스의 '히브리 진리(Hebraica Veritas)'

라틴어 불가타(Vulgata) 성경의 번역자인 히에로니무스(Jerome, c. 347–420)는 구약 성경의

권위가 유대인들이 보존해 온 히브리어 원문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유명한 **'투구 쓴 서문(Prologus Galeatus)''**에서 히브리 성경의 22권(현대 개신교의 39권에 해당)만이 정경(Canon)이며, 70인역(Septuagint)에만 존재하는 나머지 책들은 '외경(Apocrypha)'이라고 규정했다.¹

- 교회를 위한 책(**Ecclesiastical Books**): 히에로니무스는 외경을 "교회가 읽어 백성의 덕을 세우는데는 유익하나, 교리를 확정하는 권위로는 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²
- 영향력: 이 견해는 중세 내내 학문적 권위를 가졌다. 중세 신학 교과서였던 **'표준 주석(Glossa Ordinaria)''**과 니콜라우스 데 리라(Nicholas of Lyra)의 주석은 히에로니무스의 서문을 수록하여, 외경이 정경과 동등하지 않다는 인식을 학자들 사이에 유지시켰다.³

1.1.2 아우구스티누스와 카르타고 공의회의 전통

반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354–430)는 헬라어 70인역을 사용하는 초대 교회의 관습과 전례적 전통을 중시했다. 그는 유대교의 정경 범위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책들이 정경이라고 주장했다.

- 카르타고 공의회(**397, 419년**):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하에 열린 북아프리카의 공의회들은 46권의 구약 목록(외경 포함)을 확정했다.⁴ 이 목록은 교황 인노첸시오 1세의 서신 등을 통해 서방 교회 전반에 통용되는 '사실상의' 정경 목록이 되었다.⁵

1.2 중세의 유동성: 닫히지 않은 정경

따라서 1517년 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톨릭교회 내부에는 **'전례적 정경(46권)''**과 **'학문적 정경(39권)''**이 공존하고 있었다. 1442년 피렌체 공의회(Council of Florence)가 콥트 교회의 재일치를 위해 발표한 교령(Bull of Union with the Copts)에서 46권의 목록을 제시했지만, 이는 교의적 정의(dogmatic definition)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적 차원의 나열로 해석되었다.⁷ 즉, 종교개혁 직전까지도 가톨릭 신학자가 "마카베오서는 정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이는 카예탄 초기경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제6부 참조).

제2부: 인문주의적 기초: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Desiderius Erasmus)

종교개혁의 정경 축소 과정은 르네상스 인문주의(Humanism)의 문헌학적 혁명 없이는 불가능했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1466–1536)는 비록 가톨릭교회에 머물렀지만, 그가 제공한 학문적 도구와 비판적 정신은 개혁자들에게 '히브리 진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1 '근원으로(Ad Fontes)'와 문헌 비평

에라스무스는 1516년 헬라어 신약성경(**Novum Instrumentum**)을 출판함으로써, 천 년간

절대적 권위를 누려온 라틴어 불가타 역본을 상대화했다.⁸ 이는 "교회가 사용해 온 텍스트가 원문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이 원리는 필연적으로 구약성경에도 적용되었다. 신약의 기준이 헬라어라면, 구약의 기준은 히브리어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2 에라스무스의 정경관: 회의주의와 순종의 줄타기

에라스무스는 히에로니무스를 자신의 학문적 영웅으로 삼았으며, 그의 정경 구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 외경에 대한 태도: 그는 유딧기, 토빗기, 지혜서 등이 히브리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책들이 문체나 내용 면에서 정경의 품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다니엘서의 부록(벨과 용) 등에 대해서는 조소 섞인 비평을 가하기도 했다.²
- 사도신경 해설(1533): 에라스무스는 이 저술에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 정경에 따라 나열하며, 외경을 부차적인 위치로 격하시켰다.⁹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개혁자들과 결정적인 지점에서 갈라섰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외경의 권위를 의심했으나, **"교회의 합의(Consensus Ecclesiae)"**를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했다. 그는 "비록 내 지성이 의심하더라도,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나도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취했다.¹⁰ 이는 에라스무스에게 있어 정경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교회의 일치'를 위한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2.3 에라스무스의 영향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칼슈타트에게 **'비평의 칼'**을 줘주었다. 개혁자들은 에라스무스가 닦아놓은 문헌학적 기초 위에서, 에라스무스가 거부했던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감행했다. 에라스무스가 "이 책들은 의심스럽다"고 말했을 때, 개혁자들은 "그러므로 이 책들은 교리를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3부: 정경 이론의 체계화: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폰

칼슈타트

정경 축소 과정에서 가장 저평가된 인물은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폰 칼슈타트(Andreas Bodenstein von Karlstadt, 1486–1541)이다. 루터가 정경 문제를 실존적이고 신학적으로 접근했다면, 칼슈타트는 이를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정경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3.1 결정적 저술:『정경 성경에 관한 소고』(De Canonicis Scripturis Libellus, 1520)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 성경의 권위 문제에 천착한 칼슈타트는 1520년 비텐베르크에서 이 라틴어 소책자를 출판했다.¹¹ 이 책은 종교개혁기에 나온 최초이자 가장 체계적인 정경학

저술로 평가받는다.

칼슈타트는 히에로니무스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성경을 권위의 경중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는 **삼중 구조(Tripartite Division)**를 제안했다¹¹:

1. 최상위 권위(**Summa Dignitas**): 모세오경. 칼슈타트는 이를 모든 율법과 진리의 가장 맑은 원천(Limpid Spring)으로 보았다.
2. 제2의 권위(**Secunda Dignitas**): 예언서들.
3. 제3의 권위(**Tertia Dignitas**): 성문서(Hagiographa - 읍기, 시편, 잠언 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가타 성경에 섞여 있던 외경들(토빗, 유딧,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등)을 ***"정경 밖(Extra Canonem)"**의 제4의 범주로 밀어냈다. 그는 이 책들을 "위경(Apocrypha)"이라 부르며, 역사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교리적 권위는 전무하다고 선언했다.

3.2 칼슈타트의 정경 원리: 역사적 수용성

칼슈타트가 외경을 배제한 핵심 논리는 **'역사적 증거'**였다. 그는 "성령의 권위를 가진 책이라면, 그 책을 맑은 유대인들이 보존했을 것"이라고 보았다.¹¹ 즉, 구약의 수탁자인 유대교가 거부한 책을 기독교가 임의로 정경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공의회 비판: 칼슈타트는 "어떤 공의회도, 심지어 교황도 책을 정경으로 만들 수 없다. 정경성은 저자의 영감과 원독자의 수용에 의해 결정되는 내재적 속성이지, 교회의 결정으로 부여되는 외적 속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¹² 이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적 정경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3.3 칼슈타트가 루터에게 미친 영향

초기 루터는 정경 문제에 대해 다소 유동적이었다. 그러나 칼슈타트의 이 저술은 루터에게 외경을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학문적 명분을 제공했다. 비록 훗날 성만찬 논쟁 등으로 둘 사이가 멀어졌지만, 루터가 1534년 독일어 성경을 출판할 때 외경을 별도 섹션으로 분리한 것은 칼슈타트가 세운 이론적 구분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제4부: 신학적 심판자: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마르틴 루터(1483–1546)는 정경 축소 과정을 신학적 필연성으로 만들고, 이를 대중적인 독일어 성경을 통해 확산시킨 실천가였다. 그에게 정경의 문제는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구원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다.

4.1 라이프치히 논쟁(1519): 연옥과 마카베오서

정경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계기는 1519년 요한 에크(Johann Eck)와의 라이프치히 논쟁이었다. 에크는 연옥 교리의 성경적 근거로 마카베오기 하권 12장 43-45절(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현금을 바치는 내용)을 인용했다.³

루터는 이에 맞서 "마카베오서는 성경(Scripture)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교황이나 공의회가 인정했다 하더라도, 히브리 정경에 속하지 않는 책은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다.

4.2 루터의 정경 기준: "그리스도를 전하는가(Was Christum treibet)"

루터는 칼슈타트의 역사적 기준에 더해, 주관적이고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증거하는가"였다.

- 외경에 대한 태도: 루터는 외경을 무조건 혐오하지 않았다. 그는 외경이 역사적 교훈이나 도덕적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신학(행위 구원, 연옥 등)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린다고 판단될 때 가치 없이 비판했다.
 - 마카베오서: "나는 이 책과 에스더서(헬라어 부록)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대교적 미신과 이교적 부도덕함이 들어있기 때문이다."¹¹
 - 집회서(Sirach): 루터는 이 책을 "평범한 사람을 위한 좋은 가정 관리 지침서"로 호평하며, 고대 교부들이 이 책을 중시했음을 인정했다.¹²

4.3 1534년 루터 성경의 구조적 혁명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은 1534년 완간된 독일어 성경에서 외경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그는 유딧, 지혜서, 토빗, 집회서, 바룩, 마카베오 1·2권, 에스더/다니엘 부록을 구약과 신약 사이의 별도 섹션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표제를 달았다:

"외경(Apocrypha): 성경과 동등하게 여겨지지는 않으나,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들"²

이로써 루터는 46권의 성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으면서도, 39권의 정경성을 시각적, 구조적으로 확립했다. 이는 "루터교적 타협(Lutheran Compromise)"으로, 외경을 강단에서 설교 본문으로는 쓰지 않되, 가정에서의 경건 서적으로는 권장하는 독특한 전통을 형성했다.

제5부: 교조적 확정자: 장 칼뱅 (John Calvin)

루터가 외경을 "유익한 책"으로 남겨두었다면, 장 칼뱅(1509–1564)과 개혁파 전통은 외경을 더욱 철저하게 배격하여 오늘날 개신교 정경관의 기초를 닦았다.

5.1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

칼뱅은 정경의 권위가 교회의 승인이나 역사적 전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내적 확신에서 온다고 주장했다(『기독교 강요』1권 7장).¹⁴

- 신성의 감각: 칼뱅은 정경(39권)을 읽을 때 느껴지는 신적 위엄(Divine Majesty)이 외경에는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외경은 인간적인 저작물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인침이 없는 책들이었다.

5.2 트리엔트 공의회에 대한 반박

1546년 가톨릭 교회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선포하자, 칼뱅은 1547년 **『트리엔트 공의회에 대한 해독제(Antidote to the Council of Trent)』**를 써서 이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 **바룩서 비판:** 칼뱅은 가톨릭 교회가 바룩서를 예레미야서의 일부로 읽는 관습을 조롱하며,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무엇을 읽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룩서가 히브리 원문도 없고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책임을 강조하며, 교회가 진리를 창조할 권한이 없음을 역설했다.¹⁵

5.3 개혁파 정경관의 경화(Hardening)

칼뱅의 영향 하에 개혁파(Reformed) 신학은 루터교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들은 신앙고백서(예: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 1561년 벨직 신앙고백)에 정경 39권의 목록을 명시하고 외경을 배제했다.

이 흐름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에서 정점을 찍었다. 웨스트민스터는 외경에 대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간의 다른 저술들보다 더 높게 평가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¹⁶ 이는 훗날 영미권 성경전서에서 외경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삭제되는(1826년 영국성서공회의 결정 등) 결과를 낳았다.

제6부: 로마 가톨릭의 대응과 정경의 교조화

정경 축소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즉 로마 가톨릭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놀랍게도 종교개혁 초기까지 가톨릭 최고위층 인사들도 루터와 유사한 정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6.1 카예탄 초기경: 루터와 동의했던 교황의 대리인

토마스 데 비오 카예탄(Thomas de Vio Cajetan, 1469–1534) 초기경은 당대 최고의 토마스 주의 신학자이자, 루터를 심문했던 교황의 특사였다. 그러나 정경 문제에 있어서 그는 루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1532년, 즉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그가 클레멘스 7세 교황에게 헌정한 **『구약 역사서 주석(Commentary on All the Authentic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 역사서 주석을 마친다. 나머지 책들(유딧, 토빗, 마카베오 등)은 성 히에로니무스에 의해 정경에서 제외되어 외경으로 분류된다... 만약 당신이 공의회나 교부들의 글에서 이 책들이 정경으로 간주되는 것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왜냐하면 공의회와 교부들의 말은 히에로니무스의 수정(**correction of Jerome**)을 통해 재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

카예탄은 책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1. 신앙의 규범(**Canonical for Faith**): 교리를 확정할 수 있는 책 (히브리 39권).
2. 도덕의 규범(Canonical for Edification): 경건에는 유익하나 교리 증명 능력은 없는 책 (외경).

이는 종교개혁 직전까지 가톨릭교회 내에서도 39권 축소론이 '이단'이 아니라 '학문적 견해'로 용인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6.2 트리엔트 공의회(1546): 문을 닫아걸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의 도전이 거세지자, 가톨릭교회는 모호성을 버리고 명확성을 선택해야 했다. **1546년 4월 8일, 트리엔트 공의회 제4차 회기에서 교회는 **『정경 경전(Canonical Scriptures)에 관한 교령』**를 발표했다.**

- **논쟁:** 공의회 내부에서도 세리판도(Seripando) 추기경 등은 카예탄과 유사하게 "교리기준서"와 "독서용 책"을 구분하자고 제안했다(소수 의견).¹⁰ 그러나 다수파는 이러한 구분이 개혁자들에게 빌미를 줄 것이라 우려했다.
- **결정:** 공의회는 46권 전체(외경 포함)를 나열한 뒤, 이 책들을 ***"동등한 경건의 애정과 공경(pari pietatis affectu)"**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했다.⁶ 그리고 "누구든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anathema sit)"라고 못 박았다.

이 결정은 역사적으로 히에로니무스, 에라스무스, 카예탄이 가졌던 '구분'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서방 교회는 돌이킬 수 없이 두 개의 정경(39권 vs 46권)으로 쪼개지게 되었다.

제7부: 주요 인물 및 진영별 정경관 비교 분석 (데이터 표)

아래 표는 정경 논쟁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의 입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인물/진영	신분	정경 범위 (구약)	외경(Apocrypha)에 대한 태도	권위의 원천	주요 저술
히에로니무스	고대 교부	히브리 정경 (39권)	교회의 책: 읽을 수 있으나 교리 확립 불가.	히브리 원문 (Hebraica Veritas)	<i>Prologus Galeatus</i>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	회의적 / 순종적	학문적으로 는 위경으로 보나,	문헌 비평 + 교회의 권위	<i>Novum Instrumentum</i>

			교회의 합의에 순종함.		<i>m</i> 서문
칼슈타트	급진 개혁가	엄격한 39권	완전 배제: 4등급으로 분류하여 정경 밖으로 축출.	역사적 수용성 (유대교 전승)	<i>De Canonicis Scripturis</i> (1520)
루터	개혁가	그리스도 중심 (39권+)	분리 수용: "성경은 아니나 유익한 책". 부록으로 배치.	기독론적 기준 (<i>Was Christum treibet</i>)	독일어 성경 (1534)
카예탄	가톨릭 추기경	히브리 정경 (39권)	이중적 정경: 신앙의 규범은 아니나 도덕의 규범임.	히에로니무 스의 권위	구약 역사서 주석 (1532)
칼뱅	개혁파 신학자	엄격한 39권	거부: 인간의 저작일 뿐. 성령의 증거가 없음.	성령의 내적 증거	기독교 강요, 트리엔트 반박문
트리엔트 공의회	가톨릭 교도권	알렉산드리 아 정경 (46권)	완전 정경: 모든 책이 동등한 영감과 권위를 가짐.	교회의 전승과 결정	정경에 관한 교령 (1546)

결론: 복원이냐 혁신이냐

종교개혁 시기 구약 성경이 46권에서 39권으로 축소된 과정은 단순한 '책 빼기'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방 기독교가 천 년 넘게 안고 있던 ****히브리 진리(Jerome)**와 '교회 관습(Augustine)'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격렬한 몸부림**이었다.

1. 에라스무스는 원전으로 돌아가는 길(문헌학)을 닦아 정경 비평을 가능하게 했다.
2. 칼슈타트는 "공의회보다 성경이 우선한다"는 원칙 하에 정경의 역사적 경계를 이론화했다.
3. 루터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연옥 교리 등을 공격하며, 실제 성경 번역을 통해 평신도들의 손에 39권 중심의 성경을 줘어주었다.
4. 칼뱅은 이를 교의적으로 확정하여, 개혁 교회가 외경의 모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했다.

역설적이게도, 프로테스탄트의 39권 정경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중세 가톨릭 내부(카에탄, 히에로니무스 전승)에 흐르고 있던 가장 학문적인 전통을 급진적으로 ****복원(Retrieval)**한** 것이었다. 반면, 트리엔트 공의회의 46권 확정은 유동적이었던 관습을 불변의 교리로 굳힌 ****혁신(Innovation)**적 측면**을 갖는다.

결국 16세기의 정경 축소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결정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증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은 교회의 어머니이지, 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신학적 독립선언이었다. 이로써 성경은 교회의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교회를 심판하고 개혁하는 절대적 규범(Canon)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The Apocrypha - Evidence Unseen,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evidenceunseen.com/world-religions/roman-catholicism/the-apocrypha>
2. The Apocrypha - King James Version - Logos Community,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community.logos.com/discussion/62532/the-apocrypha-king-james-version>
3. (PDF) The Apocrypha in early modern England - ResearchGate,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3346649_The_Apocrypha_in_early_modern_England
4. CHURCH FATHERS: Council of Carthage (A.D. 419) - New Advent,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newadvent.org/fathers/3816.htm>
5. A Manual Of Councils Of The Holy Catholic Church -Rev. Edward H. Landon. MA,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ecatholic2000.com/councils2/untitled-04.shtml>
6. Closing the Canon in the West,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www.ntcanon.org/closing-west.shtml>
7. The Old Testament Canon and the Apocrypha: Part 3: From Jerome to the Reformation - Christian Resources,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christiantruth.com/articles/apocrypha3/>

8. Erasmus and the Search for the Original Text of the New Testament,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textandcanon.org/erasmus-and-the-search-for-the-original-text-of-the-new-testament/>
9. The Old Testament Canon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 Our Beans,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anctushieronymus.blogspot.com/2015/05/the-old-testament-canonical-in-e.html>
10. Luther And "New Testament Apocrypha" - Islamic Awareness,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islamic-awareness.org/bible/text/canon/wilkgren.html>
11. deuterocanonical-books-revised.doc - Meg Hunter-Kilmer,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piercedhands.com/wp-content/uploads/2012/05/deuterocanonical-books-revised.doc>
12. Andreas Bodenstein von Karlstadt (Chapter 27) - Martin Luther in Context,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martin-luther-in-context/andreas-bodenstein-von-karlstadt/2C505FB12B935774FCEFB4F6211E4228>
13. The Formation And Closure Of Biblical Canons: A Multifaceted Development - Islamic Awareness,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islamic-awareness.org/bible/text/canon/canons>
14. Class 7: Reformation Contested: Calvin and the Council of Trent (1509-1564) - Sermons | Capitol Hill Baptist,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capitolhillbaptist.org/sermon/class-7-reformation-contested-calvin-and-the-council-of-trent-1509-1564>
15. Can Protestants Be Edified by the Apocrypha? - The Gospel Coalition,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can-protestants-edified-apocrypha/>
16. Biblical canon - Wikipedia,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Biblical_canon
17. Cajetan's view on the canon - Christianity Stack Exchange,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christianity.stackexchange.com/questions/94317/cajetans-view-on-the-canonical>
18. Does the Church agree with Cajetan on the apocryphal books? : r/Catholicism - Reddit, 12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reddit.com/r/Catholicism/comments/vht91q/does_the_church_agree_with_cajetan_on_the/